

명인명창 최고 등용문, 전주대사습전국대회 정체성 찾기

김기형 | 고려대 국문과 교수

전주대사습놀이(전주대사습놀이)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경연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대회를 선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놀이가 앞으로도 계속 정체성 정립에 앞장서 간다면 우리나라 전통예술과 민속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성 지닌 전주대사습놀이

5월 2일~3일 전주에서 '전주대사습대회'가 열렸다. 판소리 명창부, 농악, 무용, 기악, 민요, 판소리 일반부, 시조, 가야금병창, 궁도 등 9개 종목에 걸쳐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판소리 명창 부문 장원자에게 대통령상, 농악 부문 장원팀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되었다. 부문별 장원자(팀)는 다음과 같다. 판소리 명창부문에 왕기석, 농악부문에 원주 매지농악팀, 가야금병창부문에 나승희, 무용부문에 이혜진, 기악부문에 김도현, 민요부문에 박윤정, 시조부문에 양장렬, 궁도 부문에 서안식, 판소리 일반부문에 이광복.

현재 국무총리 이상의 상이 수여되는 국악경연대회가 30개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명도나 권위 면에서 맨 앞자리에 위치한 대회가 바로 '전주대사습전국대회'일 것이다. 대회의 역사성, 전통예술에 대한 지역민의 각별한 애정, 대회 출신 명창들의 높은 기량과 빼어난 활동상 등에 힘입어 전주대사습이 가장 권위 있는 명인 명창의 등용문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성적인 성찰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의 본래 성립 취지와 역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주대사습은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시초는 조선조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전주대사습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조선조 숙종 때라고 보는 설과 철종, 고종 때라고 보는 설이 있는데,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정창업, 유공렬 편에 소개된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19세기 초 무렵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전주부(全州府) 통인청(通引廳)이 관장한 행사로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명

창의 반열에 오르는 등용문의 성격이 강했다.

19세기에 들어와 판소리의 예술적 수준과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소리꾼의 기량이나 신분에 따라 명창, 어전명창, 또랑광대, 비가비광대 등 다양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전주대사습과 같은 행사에서 자신의 기량을 인정받으면 명창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소리꾼은 명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활동공간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경제적 부도 얻을 수 있고 어전명창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신분상승까지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유공렬 조에 “30세 경에 전주대사습장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비로소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은 이 대회가 명창으로서의 기량을 인정받는 등용문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주대사습에 참여한 청중들의 품평이 명창의 기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는 점이다.

『조선창극사』 정창업 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당시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장에 참여한 정창업이 〈춘향가〉를 불렀다. “이 도령이 광한루 구경차로 나갈 때 방자 분부 듣고 나구 안장 짓는다. 나구 안장 지을 적에 나구 등에 술질 살살”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나구 등에 술질 살살” 하는 대목을 도수(度數)가 넘도록 몇 번이나 중복하고 아랫말이 막혔다. 좌중은 “저 흑독한 술질에 그 나구는 필경 죽고 말테이니 차마 볼 수가 없다” 하고 그를 이내 퇴장시켰다. 그리 되어서는 그 후로 정창업은 일시 낙명이 되어서 수년간 소리를 중지하고 근신하였다는 것이다. 소리판에 모인 청중들은 판소리에 대한 안목이 상당히 높은 귀명창이었을 터, 이들 귀명창의 반응은 소리꾼을 판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전주대사습에서 기량을 겨룬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발간한 『전주

대사습사』에는 “조선 숙종 때의 마상궁술대회(馬上弓術大會), 영조 때의 통인 물놀이, 철종 후기의 판소리 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를 종합하여 대사습놀이이라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목에 걸쳐 행해진 것이 아니라 판소리를 위한 순수 축제의 성격을 지닌 행사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전주대사습에서 판소리가 주종목이었음은 틀림없으며,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6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한 전주대사습놀이

이렇듯 전주부성의 통인들이 소리꾼들을 초청하여 판소리를 듣고 노는 잔치에서 비롯된 전주대사습은 한일 합방이 되던 191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60여 년 이상 행사가 단절되다가, 1974년 전주에서 전통예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모여 ‘전주대사습놀이 부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문공부로부터 ‘전주대사습보존회’ 승인을 얻음으로써 대사습놀이가 다시 부활되게 된다.

1975년 추진위원 주관으로 제1회 전주대사습놀이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기량을 겨룬 종목은 판소리,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 5개 부문이다. 1977년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의 사단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83년에는 기존의 5개 부문에다 기악, 민요, 판소리 일반부, 가야금병창 등 4개 종목이 더해져 9개 종목이 되면서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간취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리판에 모인 청중들은 객체화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사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함께 판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주대사습전국대회' 사물놀이

이는 전주대사습놀이가 단순히 기량을 견주어 명창을 선발하는 경연대회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공간, 놀이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를 보면, 공연 종목이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전주대사습놀이는 풍류문화와 민속문화에 기반한 축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조 후기 전주대사습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판소리만 있었는지 아니면 궁술대회도 함께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판소리가 민속문화의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궁술은 풍류문화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아무튼 이 두 종목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판소리가 이 대회 중심에 계속 위치해 있다면 궁도로 이름이 바뀐 궁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전주대사습을 대표하는 종목은 판소리와 농악이다. 이는 시상 훈격과 시상금 내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판소리 명창 장원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 액수는 판소리 부문 경연대회 가운데 최고의 액수이다. 농악 부문 장원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된다. 기악부 장원자에게는 전라북도지사상, 무용부·민요부·가야금 병창부·판소리 일반부 장원자에게는 문화방송 사장상이, 궁도부 장원자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이 수여되는데, 상금은 모두 150만 원씩이다. 판소리 명창부와 농악부를 제외한 다른 종목의 위상이 판소리 일반부와 동일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보면 전주대사습놀이 각 종목 장원자(팀) 사이에 있어서도 그 격이 매우 다른 것이다.

전주대사습놀이의 효율적인 보존과 전승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개최 목적으로 "(1)우리나라 민속음악의 고장인 전주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전주대사습놀이의 효율적인 전승 보존과 그의 전수사업, (2)민속문화인 국악의 확산과 정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대사습놀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

전주는 판소리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임실 필봉으로 대표되는 농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전주대사습놀이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1975년 대회가 부활되면서 채택한 종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악의 확산과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효율적인 보존 및 전승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경연 종목을 확대한 이유도 아마 국악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 터인데, 그렇다면 여타의 국악경연대회와 구별되는 전주대사습놀이만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본래 전주대사습놀이가 풍류문화와 민속문화의 기반 위에서 성립되고 전승된 것이라면 그러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사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는 판소리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임실 필봉으로 대표되는 농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주대사습놀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1975년 대회가 부활되면서 채택한 종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당시 채택된 종목은 판소리·농악·무용·시조·궁도 등 5종목인데, 판소리·농악·무용이 민속문화에 기반한 것이라면 궁도와 시조는 풍류문화에 기반한 전통문화이다. 시문(詩文)이나 가악(歌樂)과 같은 예술행위뿐만 아니라 궁도, 낚시, 사냥, 뱃놀이와 같이 놀이적 성격이 강한 취미활동을 포괄하여 풍류라고 하는 바, 지금은 전주대사습에서 판소리나 시조 그리고 농악 등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궁도가 실은 전통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풍류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궁술 혹은 활쏘기라고도 하는 궁도는 본래 '터편사' '골편사' 등으로 편을 짜서 각기 화살을 쏜 후에 맞추고 못 맞춘 화살 수를 계산하여 이기고 진 것을 정하는데, 이것을 '편사놀이'라고 하는 것이다. 편사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풍악과 기생이 동반되었다. 그래서 궁도와 민속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령, 첫 번

째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면 "일시관중(一矢貫中)이요" 하면서 기생들이 뒤에서 소리를 하고 북을 쳐주는데, 이것을 '호종'이라 한다. 쏜 화살이 모두 명중되었을 때에는 이를 축하하여 "지화자 지화자……"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렇듯 궁도는 풍류로 즐기는 운동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풍류의 요소는 소거되고 이제는 활을 쏘아 누가 정확하게 과녁에 맞추는가를 가리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만 지니게 된 것이다.

전주대사습에서의 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품과 상금을 내걸고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연대회로 치러지고 있다. 누가 더 많은 화살을 맞추는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스포츠 방식을 지양하고 풍류가 동반된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풍류문화와 민속문화의 특징을 잘 살려 전주대사습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조정하고 대회의 진행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악이나 가야금병창, 민요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이들 종목을 주제로 한 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각 대회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지름길이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양한 종목의 경연대회

가야금병창대회 부문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전국 우륵가야금경창대회가 있으며, 민요 부문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전국민요경창대회와 경기국악제 그리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남도민요전국경창대회와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가 있다. 기악 부문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김해전국가야금대회와 전국탐금대회가야금경연대회 그리고 전국전통경연예술대회 등이 있다. 그러니까 민요, 가야금병창, 기악 부문에서는 오히려



전주대사습전국대회 판소리

전주대사습보다도 훨씬 상의 격이 높은 다른 경연대회가 있는데, 전주대사습에서 이들 종목은 말하자면 주종목이 아닌 보조종목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민요 부문은 경우 경서도 민요 실기인이 대거 참가하는데, 이는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 단위 혹은 행사 단위로 보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 덩치를 키우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다보면 각 대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그 대회가 그 대회가 되는 형국이 되고 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례로 춘향국악대전을 들어보자. 사실 판소리 명창대회로 가장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대회는 춘향제 기간에 열리는 남원전국명창대회이다. 그런데 처음에 판소리 부문에서만 기량을 겨루어 명창을 배출하던 이 대회는 1990년대에 들어와 경연종목을 늘이면서 춘향

국악대전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오늘날 어느 대회가 더 권위가 있는가 하는 문제만 남게 되고 전주대사습놀이와 춘향국악대전의 변별성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전주대사습놀이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경연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자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른 대회를 선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종목을 확대하고 대회의 규모를 늘이면 이를 다시 줄이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렇지만 전주대사습이 행사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대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예술과 민속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중들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 풍류문화와 민속문화의 성격을 잘 살림으로써 전주대사습놀이 역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국의 지원이 가져다 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대회의 축제성을 잃지 않는 지혜로움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적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도 전주대사습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전주대사습놀이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선에서 각 종목마다 3명(팀)이 선발되고 이들이 본선에서 기량을 겨루어 순위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선과 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중이 할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 본선은 MBC 방송국을 통해 전국으로 중계된다. 대회의 진행이 방송국과 연계돼 있음으로 해서 전주대사습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그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는 방송국의 일정 따라 대회 일정이 좌우되고 심지어는 대회의 공간 배치까지 모두 방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번 31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본선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조명을 새로이 설치하면서 가설물들을 중간중간 세워 놓아 청중석에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다. 유명 연예인 출신이 진행을 맡아 쇼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대회를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청중이나 시청자들에게 국악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심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필자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쇼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무대세트를 꾸미고 조명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종목의 특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관을 벌여 청중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았을 때, 행사도 살고 방송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궁도는 종목의 성격상 실내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했지만 실은 농악 또한 그렇게 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리고 판소리, 무용, 민요, 기악, 가야금병창 등과 같은 종목은 음향시설이 좀더 잘 갖추어져 있는 공간에서 행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본선이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은 무엇보다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중들은 물론이고 심사위원들에게도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을 지닌 곳이었다. 게다가 방송에 맞추어 판을 꾸미다 보니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곳곳에서 조명탑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경연대회 참가자, 심사위원, 청중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모두 제각각의 자리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 MC의 요란한 진행소리와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찍고 있는 카메라만이 제 몫을 하는 듯한 경연대회장의 풍경은 청중 층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는 진정한 축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 풍류문화와 민속문화의 성격을 잘 살림으로써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국의 지원이 가져다 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대회의 축제성을 잃지 않는 지혜로움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